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3분 말하기 발표를 맡게 된 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달 보건 교육 행사로 양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보건실에 들러 선생님께 양치질 여부를 확인받으면 되고요, 필요하다면 치아 상태를 검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캠페인과 관련하여 양치질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입안에 살고 있는 구강 미생물 때문입니다. 구강 미생물의 종류는 700종이 넘는 데, 이 중에는 유익한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이들이 균형을 유지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양치질을 소홀히 하여 구강 위생 상태가 나빠지거나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원균과 같은 해로운 미생물의 영향력이 우세해지면서 잇몸 염증이나 치아 우식증 같은 구강 질환이 발생합니다.

해로운 미생물의 증가는 구강뿐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국대 치의학대학원 최○○ 교수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강은 미생물이 우리 몸속으로 파고들기에 가장 좋은 통로라고 합니다. 구강 질환이 발생하고 염증이 생기면 이로 인해 손상된 잇몸 조직을 통해 병원균이 몸속으로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강에서 몸속으로 침투한 병원균은 동맥 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다른 질병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양치질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지요? 양치질은 건강한 입안을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이번 캠페인도 이러한 습관을 기르기 위한 행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캠페인 참여율은 어떨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 이 그래프를 보면 전체 학생의 참여율은 2주간 증가하다가 지난주에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별 참여율을 보시면 우리 반은 참여율도 낮은 데다 지난주의 감소 폭도 가장 큼니다. 이런 결과는 평소 양치질을 소홀히 했던 우리 반 친구들의 생활 습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은 남은 기간에 모두 캠페인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구강 건강은 물론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바른 생활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발표를 위해 작성한 학생의 메모이다. 발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처음	○ 청중이 알고 있는 상황과 관련지어 화제 제시하기 ㉠
중간	○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 간의 인과 관계가 드러나도록 설명하기 ㉡ ○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 구성하기 ㉢
끝	○ 청중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전체 발표 내용 요약하기 ㉣ ○ 청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무리하기 ㉤

- ① ㉠ ② ㉡ ③ ㉢ ④ ㉣ ⑤ ㉤

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청중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 ② 문제 해결 방안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를 부각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③ 복잡한 현상의 원리를 한눈에 보여주는 데 활용되고 있다.
- ④ 자료 작성 방법 및 출처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⑤ 청중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청자 1: 그동안 양치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을 반성하게 됐다. 양치질이 구강은 물론이고 몸 전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니 놀라웠어. 오늘부터 당장 캠페인에 참여하고 양치질을 습관화해야겠어.

청자 2: 세균이 치아를 망가뜨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입안 미생물에 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돼서 좋았어. 학교 도서관에 가서 관련 분야의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청자 3: 발표자의 성량도 적당하고 시선 처리도 자연스러웠어. 하지만 구강 관리를 위해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서 아쉬웠어.

- ① 청자 1은 발표를 듣고 기존에 가졌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군.
- ② 청자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후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하는군.
- ③ 청자 2는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
- ④ 청자 3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아쉬웠던 점을 떠올리고 있군.
- ⑤ 청자 3은 발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군.

[4 ~ 7] (가)는 지역 라디오 방송의 대담이고, (나)는 (가)를 들은 후 구청 민원 게시판에 올리기 위해 쓴 건의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대담 ‘안녕, 우리 동네’입니다. 오늘의 화제는 ‘도로 소음, 문제와 대책’으로,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환경공학과 박□□ 교수님과 도시정책학과 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 교수님, 최근 도로 소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 교수: 소음은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과 달리 축적되지 않고 발생과 동시에 소멸하는 특성이 있어 그동안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차량이 증가하고 도로가 늘어나면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소음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상시적인 도로 소음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군요. 김 교수님, 이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없는지요?

김 교수: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진동 관리법 등을 통해 소음을 규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도로변 소음의 법적 허용 기준을 주간 68dB, 야간 58dB로 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소음 발생이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애초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먼저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교수: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소음 저감 기술에는 방음벽, 방음 터널 등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도로에서 도로 주변으로 퍼지는 소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음벽의 경우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체로 5m 이하로 설치되어 주변 건물이 6층 이상의 높이일 경우 방음 효과가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방음 터널의 경우에는 소음원 자체를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방음의 효과가 탁월하지만, 초기 설치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입·출구부에서 소음이 크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회자: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은 없는지요?

박 교수: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저소음 포장 공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소음의 90%는 차량 타이어 홈에 들어간 압축 공기가 도로와 마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면 마찰 소음을 줄여 최대 9dB 정도의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건물에 방음 창호를 설치하면 최대 35dB 정도의 소음을 줄일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이어서 김 교수님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 도로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앞서 박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저소음 포장 공법을 활용하여 도로를 포장할 경우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과 같이 소음 피해의 가능성이 큰 지역을 소음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이 40dB을 넘지 않도록 주변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거나 방음 시설을 설치하는 등 소음 피해를 막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A시 ○○동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평소 우리 동네의 도로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로 소음 문제와 관련한 라디오 대담을 듣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도시 고속화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은 고속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하루 종일 일으키는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들이 상시적으로 일으키는 소음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담에서 들은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소음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경우 소음이 40dB을 넘지 않도록 자동차 주행 속도를 제한하거나 방음 시설을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곳곳에도 수직 일자형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높이가 낮아 고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체감하는 도로 소음 피해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해 보입니다.

소음으로 인해,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할 집이 가장 불편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동네의 고속화 도로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4.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담 참여자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있다.
- ② 대담의 화제를 제시하고 발언자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대담 내용의 흐름에 맞게 발언자를 지정하고 있다.
- ④ 발언자가 말한 내용을 정리하며 대담을 이어가고 있다.
- ⑤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5. 대담 참여자들의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 교수는 소음의 특성을 밝히고 최근에 도로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박 교수는 장단점을 거론하며 소음 저감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박 교수는 소음 저감 기술의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김 교수는 박 교수의 의견을 듣고 기존 소음 저감 기술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 ⑤ 김 교수는 박 교수가 설명한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6. <보기>는 학생이 (나)를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것끼리 골라 묶은 것은?

— < 보 기 > —

- ㉠ 대담의 내용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드러내야겠어.
- ㉡ 제안하려는 대책이 실현될 경우를 가정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언급해야겠어.
- ㉢ 도로 소음 발생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원인별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겠어.
- ㉣ 도로 소음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혼자만이 아님을 거듭 언급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해야겠어.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7.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㉞ 연구 자료

1.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최소 소음 기준

건강상의 악영향	최소 소음 기준
수면 방해	32dB
불쾌감 유발과 생활 방해	42dB
학습과 기억의 방해	50dB
고혈압증 등의 건강 침해	
심장 질환 유발	60dB

- 유럽환경청 보고서(2010년) -

2. 꺾임형 방음벽 기술의 효과

꺾임형 방음벽 기술은 기존의 방음벽 상단에 소음원 방향으로 60° 꺾인 벽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수직 일자형 방음벽 위로 넘어가는 음의 회절을 방해하여 아파트 고층의 소음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보고서(2011년) -

㉟ 설문 조사 분석 자료

A시 ○○동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우리 동의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속화 도로 주변 소음 문제’라는 대답을 한 주민이 75% 이상이었음. 이렇게 대답한 주민 가운데 약 80%가 6층 이상의 아파트 고층에 사는 사람들이었음.

㊱ 지역 신문 기사

A시 ○○동을 지나는 고속화 도로 인근 아파트 고층에서 측정된 소음이 최대 80dB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은 고층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음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최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달리는 것이 소음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① ㉞-1과 ㉟를 활용하여 현재 고속화 도로 주변의 소음이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② ㉞-2와 ㉟를 활용하여 현재 설치된 방음벽으로는 고층 아파트의 소음 저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꺾임형 방음벽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해야겠어.
- ③ ㉟를 활용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속화 도로 소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해야겠어.
- ④ ㉞를 활용하여 우리 동네 부근 고속화 도로를 지나는 차들이 속도 제한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글에 추가해야겠어.
- ⑤ ㉞를 활용하여 우리 동네가 소음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8~10] (가)는 영화 제작 동아리의 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나)는 (가)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회의 주제]

신입생 안내 책자에 실을 동아리 소개 글 작성

[회의에서 나온 의견]

- 글의 앞부분에서 동아리의 활동 목적과 현황을 밝히자. ... ㉠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작년도 동아리 활동의 성과를 밝히자. ㉡
- 모집 분야를 안내하고, 분야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설명하자. ㉢
- 동아리 활동을 하는 시기와 활동 시간을 밝히자. ㉣
- 가입 신청서의 제출 기한과 장소를 안내하자. ㉤
- 글의 끝부분에 홍보 문구를 덧붙이자.

(나)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별’은 영화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단편 영화를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직접 영화를 제작해 봄으로써 영화에 대한 소양과 영화 제작 능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드는 우리 동아리에서는 총 15명의 2, 3학년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는 단편 영화를 1년에 한 편씩 제작하여 상영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기억의 저편’이라는 영화를 ○○구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상영하였습니다. 350여 명의 적지 않은 관객들이 관람하였고, 관객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㉞ 단편 영화를 관람할 때는 관람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별’에서는 모집 분야를 대본, 연출 및 편집, 연기, 소품, 촬영 담당으로 ㉟ 구분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분야를 담당한다고 해서 그 분야의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 예술로서의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분야를 맡은 부원들 간의 소통이 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하늘별’은 기획 회의는 물론 대부분의 활동을 ㉢ 공동으로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촬영과 편집이 집중되는 7월과 10월에는 주 3회 3시간씩 활동합니다. 동아리 전체가 모여서 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업이 힘들어지는 것도 다 반사이지만, 실제로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해 본 부원들은 공동 작업이야말로 ‘하늘별’만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1학년 학생들은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관 4층 동아리실로 3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활발하고 의욕 넘치는 신입생 여러분을 두 팔 ㉣ 벌여 맞이하겠습니다.

[A]

8. (가)의 ㉠~㉤ 중 (나)에서 활용되지 않은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 [A]에 들어갈 **홍보 문구**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영화를 제작한다는 동아리의 특성을 드러내고, 가입을 권유할 것.
- 대구법을 사용할 것.

- ① 깊이 남을 명대사, 잊지 못할 명장면!
‘하늘별’이 만들어 냅니다.
오직 하나뿐인 영화 제작 동아리 ‘하늘별’입니다.
- ② 대본부터 편집까지 한 편의 영화를 만듭니다.
웃음부터 눈물까지 한 줄기의 감동을 드립니다.
‘하늘별’은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 ③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아봅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우리 손으로 만들어 냅니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결실!
- ④ 한 편의 영화를 꽃 피우기 위해 일 년을 보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돌아가진 않습니다.
‘하늘별’은 그 길을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⑤ 영화와 함께하면 우리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영화 속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죠.
우리만의 세상, 하늘별로 오세요.

10.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3문단 끝으로 옮긴다.
- ② ㉡는 문장 성분 간 호응을 고려하여 ‘구분하고’로 고친다.
- ③ ㉢는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지 못하므로 ‘그래서’로 고친다.
- ④ ㉣는 뒷말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 ⑤ ㉤는 어문 규범에 어긋나므로 ‘벌려’로 고친다.

11. 밑줄 친 말 중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이 문장 중의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이다. 조사는 체언이 문장 속에서 다른 말과 맺는 관계를 표현하는 격조사,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서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하는 접속 조사, ㉠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로 구분된다.

- ① 오직 새소리만 들렸다.
- ② 시험까지 한 달도 안 남았다.
- ③ 나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한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신문을 보셨다.
- ⑤ 그는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다.

12.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우리말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이룰 때, 뒤 어근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두 어근 사이에 ‘ㄴ’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표준발음법의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 ㉠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ㅇ’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ㅇ]으로 발음한다.

㉠은 앞 어근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 어근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는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ㄴ, ㄹ’으로 시작되면 앞 어근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 혹은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면 앞 어근의 끝소리와 뒤 어근의 첫소리에 각각 ‘ㄴ’이 첨가되는 현상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들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빨랫돌[빨래돌 / 빨랫돌], 옷깃[올깃],
홀이불[흔니불], 뱃머리[뱀머리], 깃잎[깐닙]

- ① ‘빨랫돌’은 합성 명사로, 앞 어근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 어근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므로 ㉠의 예로 볼 수 있어요.
- ② ‘옷깃’은 합성 명사이고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의 예로 볼 수 있어요.
- ③ ‘홀이불’은 ‘ㄴ’의 첨가가 나타나지만, ‘홀-’이 접사이므로 ㉡의 예로 볼 수 없어요.
- ④ ‘뱃머리’는 합성 명사로,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ㄹ’으로 시작하는 음운 환경에서 앞 어근의 끝소리에 ‘ㄴ’이 첨가되므로 ㉡의 예로 볼 수 있어요.
- ⑤ ‘깃잎’은 합성 명사로,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 어근이 ‘ㅣ’로 시작되는데 앞 어근의 끝소리와 뒤 어근의 첫소리에 각각 ‘ㄴ’이 첨가되므로 ㉡의 예로 볼 수 있어요.

13.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피동문은 서술어가 형성되는 방법에 따라서,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으로 나뉜다. 파생적 피동문은 능동사 어간을 어근으로 하여 파생 접사 ‘-이-, -히-, -리-, -기-’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사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이다. 한편 통사적 피동문은 서술어로 쓰이는 타동사의 어간에 ‘-아/어지다’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 동사도 있다. 또 ㉡ 능동문의 서술어로 쓰인 동사의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문장도 있다.

	㉠	㉡
①	주다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②	먹다	사람들이 열심히 풀을 뽑았다.
③	돕다	동생이 부모님께 칭찬을 들었다.
④	만나다	학생들이 벽화를 멋지게 그렸다.
⑤	나누다	누나가 일부러 문을 세계 단았다.

[14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이 안긴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는데, 이 가운데 명사절은 서술어로 쓰인 용언의 어간에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붙어 만들어진다. 명사형 어미는 안긴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이 서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사처럼 기능하도록 용언의 문법적인 기능을 바꾼다.

- ㄱ. 그것이 사실임이 틀림없다.
- ㄴ. 나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데, 위의 예문에서 ㄱ의 명사절은 주어의 기능을 하고, ㄴ의 명사절은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도 다양한 명사형 어미가 사용되어 만들어진 명사절이 문장에서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였다. 중세에 사용된 명사형 어미로는 ‘-음/움’과 ‘-기’, ‘-디’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음’과 ‘-움’은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음’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움’이 쓰였다.

14. 윗글을 참고할 때, ㉠~㉡ 중 명사절이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된 것끼리 묶은 것은?

< 보 기 >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	그는 1년 후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	어린 아이들은 병원에 가기 싫어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15. 윗글을 참고할 때, ㉠~㉣ 중 명사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날로 뿌메 뻥한키 <u>흐고져</u> (나날이 숨에 편하게 하고자)
㉡	구르미 축추기 <u>돕듯</u> <u>흐시니라</u> (구름이 축축하게 덮듯 하시니라)
㉢	부모를 <u>현더케</u> <u>흠이</u> <u>효도의</u> <u>므춤이니라</u>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끝이니라)
㉣	본향(本郷)에 <u>도라움만</u> <u>근디</u> <u>몰흐니라</u> (본향에 돌아옴만 같지 못하니라)
㉤	내 <u>겨지비라</u> <u>가져</u> <u>가디</u> <u>어려볼씨</u> (내가 계집이라 가져가기 어려우니)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근대 이전의 조각은 고유한 미술 영역의 독립적인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신전이나 사원, 왕궁과 같은 장소의 일부로서 존재했다. 중세 유럽의 성당 곳곳에 성서와 관련된 각종 인물이 새겨지거나 조각상으로 놓였던 것, 왕궁 안에 왕이나 귀족의 인물상들이 놓였던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조각은 그것이 놓여 있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왕의 권력을 상징함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조각이 장소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그 장소의 맥락과 의미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 종교의 영향력 및 왕권이 약화되면서 관련 장소가 지녔던 권위도 ㉠ 퇴색하여, 그 장소에 놓인 조각에 부여되었던 종교적, 정치적 의미도 약해진 것이다. 또 특정 장소의 상징으로서의 조각이 원래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기존의 맥락을 ㉡ 상실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이 전시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 근대적 장소가 ㉢ 출현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조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조각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놓이면서 미적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 것이다. 사람들은 조각을 예술적인 기법이나 양식 등 순수한 미적 현상이 구현된 독립적인 작품으로 감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이후 미술의 흐름 속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작품 외적 맥락에 ㉣ 구속되기보다는 작품 자체에서 의미의 완결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작품 바깥의 대상을 지시하거나 재현하기보다는 감상자의 시선을 작품에만 집중시키는 단순하고 추상화된 작품들이 이 시기부터 많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대개 미술 전시장의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즉 출입구 이외에는 사방이 막힌 실내 공간 안에서 받침대 위에 놓여 실제적인 장소나 현실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주었다.

이렇게 조각이 특정 장소로부터 독립해 가는 경향 속에서 미니멀리즘이 등장하였다.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예술 사조로, 작품의 의미가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꾸밈과 표현도 최소화하여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했다.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산업 재료들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의도성과 단순성을 구현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작품이라기보다는 사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니멀리즘 조각은 감상자들이 걸어 다니는 바닥이나 전시실 벽면과 같은 곳에 받침대 없이 놓임으로써 감상자와 작품 간의 거리를 축소하고, 동선에 따라 개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의미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미니멀리즘 조각은 단순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추상 조각과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전시장이라는 실제 장소의 물리적 특성을 작품에 의도적으로 결부하여 활용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게 되었다. 이런 특징은 근대 이전의 조각이 장소의 특성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과도 차별화된다.

이후 미술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통해 부각된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실현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미니멀리즘 작품이 장소와의 관련성을 모색하고 구현한 것이기는 해도 미술관이라는 공간 내부에 제한된다는 점을 ㉔ 간과한 일부 예술가들은, 미술관 바깥의 도시나 자연을 작업의 장소이자 대상으로 삼아 장소와의 관련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려 하였다. 대지 미술은 이러한 시도 중 하나로, 대지의 표면에 형상을 디자인하고 자연 경관 속에 작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지역이나 환경 자체를 작품화하였다. 구체적인 장소의 특성을 작품 의미의 근원으로 삼는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작품과 장소, 감상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된다는 특징이 드러났다.

16.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쟁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 ② 통념에 대한 비판을 통해 특정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③ 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 대립적인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⑤ 논의의 대상이 변모해 온 양상을 시간적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대지 미술가들은 자연을 창작 작업의 장소이자 대상으로 삼았다.
- ② 화이트 큐브는 현실로부터 작품이 분리된 느낌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 ③ 왕권이 약해짐에 따라 왕의 모습을 담은 인물상에 부여되는 상징적 의미가 변화되었다.
- ④ 19세기 이후의 추상 조각은 감상자의 시선을 작품 외적 맥락보다 작품 자체에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 ⑤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가공하지 않은 산업 재료들을 사용하여 무의도성과 단순성을 구현하기도 하였다.

18. [가]와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중세 시대에 건축, 조각, 회화는 독자적인 예술 분야가 아닌 기술이나 수공업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며, 정치, 사회적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근대에 이르러 미술의 개념이 확립되고 미가 인간 행위를 지배하는 하나의 독립적 원리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은 종교적 신비감이 시들해진 상태에서 순수한 미적 체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미술관을 포함한 박물관의 건립은 이러한 변화와 맞물린 근대적 현상이었다.

- ① 박물관에서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온 조각상은 건축, 조각, 회화 영역의 통합에 기여하겠군.
- ② 근대에 출현한 박물관은 작품이 가진 수공업으로서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겠군.
- ③ 조각상을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것에 정치, 사회적 기능을 부여한다는 뜻이겠군.
- ④ 종교적인 인물상이 사원에서 박물관으로 옮겨지면서 미의 개념이 예술 분야에서 기술 분야로 확대되었겠군.
- ⑤ 중세의 종교 건축물의 일부였던 조각상이 원래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면 원래의 종교적 신비감이 유지되기 어렵겠군.

19. <보기>는 미술 작품을 감상한 사례이다.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작품	감상 내용
 ㉑: <L자 빔>	A는 미술관 안에서 동일한 크기의 ‘L’자 모양 조형물들을 곳곳에 배치한 ㉑을 보았다. 조형물들 사이를 걸으며 감상해 보니, 보는 위치에 따라 조형물들의 형태와 구도가 다르게 보였다. 서로 다른 동선으로 ㉑을 감상한 B와 그 느낌을 비교해 볼 수도 있었다.
 ㉒: <나선형 방파제>	㉒은 그레이트 솔트 호수에 설치된 작품으로, 돌과 흙으로 만든 나선형의 방파제이다. C는 실제로 방파제 위를 걸어 보았는데, 가장 자리의 일부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했다. 육지 쪽으로 나와서 바라보니 방파제 위에 하얀 소금 결정들이 덮여 있는 부분도 보여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 ① ㉠은 미술관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 구별된다.
- ② ㉠을 감상하는 동선에 따른 A와 B의 상이한 경험은 작품에 대한 각자의 의미 형성에 기여했을 것이다.
- ③ ㉡은 호수라는 자연에 돌과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 자연 환경을 작품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은 그 위나 주변을 걸으면서 감상하게 되므로, 작품의 의미는 작품, 감상자 및 장소 간의 상호 작용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과 ㉡은 감상자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장소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 작품으로 볼 수 있다.

20.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희미해져
- ② ㉡: 잃어버리는
- ③ ㉢: 드러나는
- ④ ㉣: 얽매이기보다는
- ⑤ ㉤: 알아차린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지도에서는 푸른 것을 바다라 하였고
얼룩덜룩한 것을 육지라 부르는
습관을 길러 왔단다.

이제까지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다는
저 하늘을 닮아서 바다는 한결로 푸르고

육지가 석류껍질처럼 울긋불긋한 것은
오로지 색채를 즐긴다는 단조한 이유가 아니란다.

오늘 펴보는 이 지도에는
조선과 인도가 왜 이리 많으냐?

시방 나는
똥그란 지구가 유성처럼 화려히 떨어져 갈 날을
생각하는 '외로움'이 있다.

도시* 지구는 한 덩이 푸른 석류였거니.....
- 신석정, 「지도」 -

* 도시: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 (나)
- [A] 목련이 도착했다
한전 부산지사 전차기지터 앞
꽃들이 조금 일찍 봄나들이를 나왔다
나도 꽃 따라 나들이나 나갈까
 - [B] 심하게 앓고 난 뒤의 머릿속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
전차 구경 와서 아주 뿌리를 내렸다는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겠지
꽃양산 활짝 펴 든
머느리 따라 구경 오신 할아버지도 그랬겠지

- 나뭇가지에 코일처럼 감기는 햇살,
저 햇살을 따라가면
나무 어딘가에 숨은 전동기가 보일는지 모른다
전차바퀴 기념물 하나만 달랑 남은 전차기지터
- [C] 레일은 사라졌어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레일을 따라
바퀴를 굴리는 힘을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지난밤 내리치던 천둥번개도 찌릿찌릿
저 코일을 따라가서 동력(動力)을 얻진 않았는지,
한 량 두 량 목련이 떠나간다
- [D] 꽃들이 전차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든다
저 꽃전차를 따라가면, 어머니 아버지
신혼 첫밤을 보내신 동래온천이 나온다
- 손택수, 「목련 전차」 -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 ② 구체적 사물을 매개로 한 상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시행의 반복으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지도는 영토와 국경의 존재를 드러내고 육지와 바다, 국가와 국가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가)는 '지도', '지구'와 같은 지리적 표상을 다루고 구체적 장소를 제시하면서 이를 1930년대 제국주의 치하의 현실과 연결하고 있다. (가)의 화자는 지도를 보며 민족 공동체의 차원에서 일체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식을, 세계 공동체의 차원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인류 평화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 ① 화자는 '바다'를, '국경이 있어 본 일이 없'는 '하늘'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는 '바다'와 '육지'를 대비하며 '육지'가 '바다'를 닮지 못한 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조선과 인도가 왜 이리 많으냐?'라는 화자의 말에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화자의 '외로움'은 '지도'의 '울긋불긋한' '색채'를 더 이상 즐기지 못한다는 체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도시 지구는 한 덩이 푸른 석류였거니.....'에는 세계 공동체의 차원에서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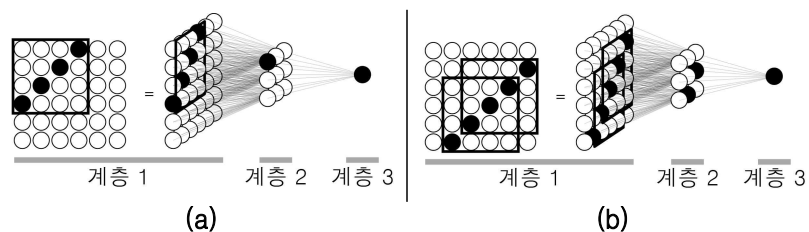
23. [A]~[D]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의 ‘목련이 도착했다’에서 [D]의 ‘목련이 떠나간다’로 이어지는 시상 전개는 자연의 흐름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② [A]의 ‘전차기지터’는 ‘나’의 ‘나들이’와 [B]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의 나들이를 이어주면서 서로 다른 세대를 공통적 경험으로 묶는 매개 역할을 하는군.
- ③ [C]의 ‘나뭇가지에 코일처럼 감기는 햇살’에서 ‘나무 어딘가에 숨은 전동기’를 떠올림으로써 목련을 피워내는 자연의 생명력을 환기하고 있군.
- ④ [C]의 ‘하나만’ 남은 ‘전차바퀴’에서 [D]의 ‘한 량 두 량’ 떠나가는 ‘목련’으로 이어지는 시상 전개는 현대의 기계 문명에 의해 사라지는 자연물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군.
- ⑤ [C]의 ‘생명의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D]의 ‘꽃전차’가 ‘어머니 아버지/신혼 첫밤을 보내신 동래온천’을 향한다고 생각하면서 화자는 자기 가족의 출발점을 떠올리고 있군.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빛은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에서 수용되어 전기 신호로 변환된 뒤,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된다. ㉠ 후벨과 위젤은 망막에 비춰진 빛에 대해 고양이의 시각 피질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하였다. 그들은 이를 통해 시각 피질 세포가 망막의 일정 영역 내 광수용기 세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나의 시각 피질 세포와 연결된 망막상의 일정 영역을 해당 시각 피질 세포의 ‘수용장’이라고 한다.

또한 이 실험을 통해 시각 피질이 하위의 ‘단순 세포’와 상위의 ‘복잡 세포’의 다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단순 세포와 복잡 세포 모두 각각의 수용장에 비친 특정한 각도를 가진 선분 모양의 빛에 활성화된다. 하지만 단순 세포가 수용장 내 특정 위치의 빛에만 활성화되는데 반해, 복잡 세포는 수용장이 단순 세포보다 넓고, 수용장에 비춰진 빛의 위치 변화에 관계없이 활성화된다. 이는 복잡 세포가 다수의 단순 세포들로부터 전기 신호를 전달받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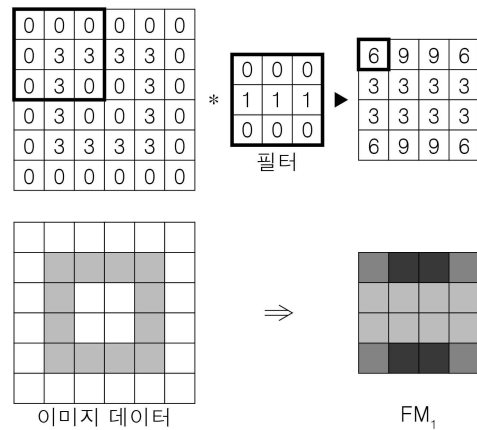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1>은 이러한 시각 피질 세포들의 전기 신호 전달 과정을 다층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형의 각 층은 유닛들로 구성되는데, 계층 1의 각 유닛은 망막의 광수용기 세포에, 계층 2의 각 유닛은 단순 세포에, 계층 3의 유닛은 복잡 세포에 대응된다. 이때, 검은색 유닛은 해당 유닛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하며, 계층 1의 사각형 영역은 계층 2의 활성화된 유닛의 수용장을 표시한 것이다. (a)와 (b)는 각각의 사선 패턴의 위치에 따른 각 유닛들의 활성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계층 2의 각 유닛은 자신의 수용장 안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각도의 사선 패턴이 입력되면 활성화된다. 계층 3의 유닛은 계층 2의 유닛 중에 하나라도 활성화되면 활성화된다.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인식(image recognition)*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 신경망으로서, <그림 1>과 같은 다층 구조의 신경망 모형을 수학적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합성곱 신경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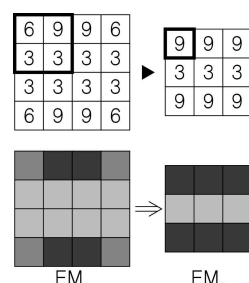
‘합성곱층’과 ‘통합층’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에 의해 출력된다. 먼저, 합성곱 연산은 특정한 크기의 **필터**가 이미지 데이터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일정 간격으로 이동해 가며 이미지 데이터와 필터의 곱을 합산하는 과정이다. 이때 필터는 이미지 데이터의 국부 영역에 존재하는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2>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이 ‘□’의 형태를 가진 6×6 크기의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수평 방향의 패턴을 추출한다고 하자. 이때, 각 유닛의 숫자는 명암을 0부터 10까지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필터의 크기가 3×3이고 이동 간격을 1 유닛 단위로 설정했다면, 필터가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한 칸씩 이동해 가면서 합성곱을 16번 연산하고 4×4 크기의 ‘특징 지도’(feature map, FM)가 출력된다. <그림 2>에서 특징 지도 FM₁의 가장 왼쪽 위 유닛 값 ‘6’은 이미지 데이터의 왼쪽 위 3×3의 영역과 필터와의 곱의 총합인 ‘0×0+0×0+0×0+0×1+3×1+3×1+0×0+3×0+0×0’의 연산을 통해 구해진 것이다.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 이미지 데이터에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면 필터의 특성에 맞게 강조된 특징 지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는 합성곱 연산 결과 수평 방향의 패턴이 강조되고 데이터 크기는 6×6에서 4×4로 줄어 출력된 특징 지도를 보여 준다. 이때, 필터의 이동 간격이 크게 설정된다면 출력되는 특징 지도의 크기를 줄여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지의 특징을 놓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림 3>

다음으로, 통합 연산은 합성곱층의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유닛 값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연산이다. 통합 연산 규칙에는 최댓값 통합 규칙, 평균값 통합 규칙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새롭게 출력된 특징 지도로 통합층이 구성된다. <그림 3>은 <그림 2>의 FM₁을 2×2 범위로 최댓값 통합 규칙에 따라 통합 연산한 것이다. 이때, 통합 연산의 범위를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1 유닛 단위로 이동하도록 설정하면 3×3 크기의 새로운 특징 지도 FM₂가 출력된다.

합성곱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어떤 영역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추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필터를 통해 이를 반복하면 이미지 속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연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패턴의 위치 정보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정보이다. 왜냐하면, 합성곱 연산을 통해 출력된 특징 지도 내에서 서로 인접한 유닛들은 미세한 위치 정보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한 패턴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통합 연산 수행은 합성곱 연산의 결과에서 위치 정보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한다.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을 통해 위치 정보는 축약되고 패턴 정보는 강조된 특징 지도가 출력된다. 그리고 이 특징 지도를 인공 지능 네트워크인 ‘전체 연결층’에 입력하여 이미지 인

식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입력된 이미지가 많아질수록 인공 신경망의 기계 학습을 통해 합성곱 신경망이 스스로 필터의 수치를 갱신함으로써 이미지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합성곱 연산 및 통합 연산의 횟수, 필터의 크기 및 이동 간격, 통합 연산 규칙 등은 초기 설정 값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합성곱 신경망을 설계해야 한다. 최근 인공 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곱 신경망은 사진 자동 분류, 필기 인식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 이미지 인식: 이미지 속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2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합 연산은 합성곱층의 일정 범위 내의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시각 피질의 복잡 세포는 단순 세포로부터 전달받은 전기 신호를 전체 연결층에 전달한다.
- ③ 시각 피질의 단순 세포는 수용장 내에 비취진 특정 각도의 선분 모양의 빛에 활성화된다.
- ④ 합성곱 신경망으로 이미지를 인식하려면 특정 지도에 특정 패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 ⑤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 연산과 통합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패턴 정보가 강조된 특정 지도를 추출한다.

25. <보기>는 ㉠을 재구성한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와 윗글의 <그림 1>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양한 빛 자극에 대해 시각 피질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기 위해, 선분 모양의 빛을 고양이의 망막에 비춘다. 이때, 빛의 각도는 각도 ㉠과 ㉡로, 빛이 비추어지는 수용장 내 위치는 위치 ㉢과 ㉣로 각각 다르게 한다. 그 결과 세포 A와 B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단, 세포 A와 B는 서로 다른 시각 피질 세포이며, 망막의 특정 영역을 수용장으로 공유한다.)

실험			실험 결과	
	빛의 각도	빛의 위치	세포 A	세포 B
자극 1	㉠	㉢	○	○
자극 2	㉠	㉣	○	×
자극 3	㉡	㉢	×	×
자극 4	㉡	㉣	×	×

(○: 활성화, ×: 비활성화)

- ① '자극 1'의 실험 결과를 고려하면, '세포 A'와 '세포 B'가 반응하는 빛의 각도는 같겠군.
- ② '자극 1'과 '자극 2'의 실험 결과를 고려하면, '세포 A'의 수용장이 '세포 B'의 수용장보다 더 넓겠군.
- ③ '자극 1'과 '자극 3'의 실험 결과를 비교하면, '세포 A'는 각도 ㉡의 빛에는 반응하지 않겠군.
- ④ '세포 A'는 <그림 1>의 '계층 3'의 유닛에, '세포 B'는 '계층 2'의 유닛에 해당하겠군.
- ⑤ '자극 1'과 '자극 2'의 실험 결과는 <그림 1>의 (a)에, '자극 3'과 '자극 4'의 실험 결과는 (b)에 해당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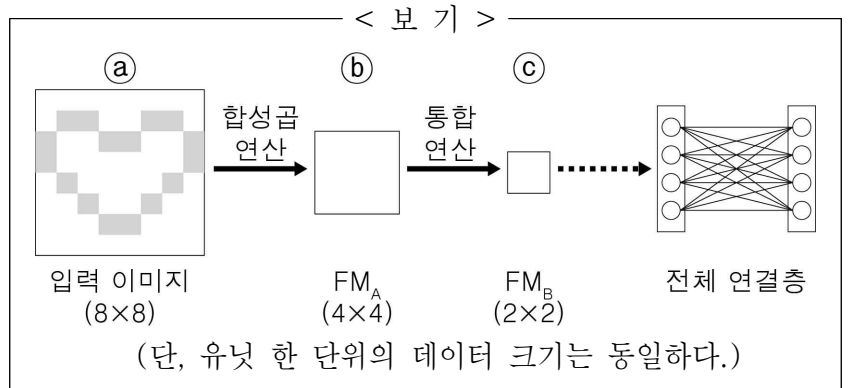
26. [필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면 필터의 특성이 반영된 특정 지도가 출력된다.
- ② 필터의 기능은 이미지 데이터에서 특정한 기하학적 패턴을 검출하는 것이다.
- ③ 적절한 필터를 통해 합성곱 연산을 반복하여 이미지 속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 ④ 필터의 크기와 이동 간격의 비율은 합성곱 신경망에 의해 자동적으로 변화된다.
- ⑤ 필터의 매개를 통해 이미지 속 사물의 패턴에 대한 정보가 합성곱층에 반영된다.

27. [가]를 고려할 때, '통합 연산'을 수행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통합 연산 수행 이전과 이후, 이미지 속 사물에 대한 인식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② 통합층의 각 유닛에 담긴 정보는 합성곱층의 각 유닛에 담긴 정보와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 ③ 이미지 속 사물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합성곱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④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 결과에 이미지 인식에는 불필요한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⑤ 통합 연산은 합성곱층에 포함된 이미지 속 사물의 패턴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8. <보기>는 '♡' 모양의 디지털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데이터 크기는 ㉠에 비해 작겠군.
- ② 필터의 이동 간격을 1 유닛 단위로 설정했다면 ㉡를 출력하기 위해 5×5 필터가 사용되었겠군.
- ③ 2×2 범위로 평균값 통합을 통해 ㉢를 출력했다면, ㉢의 데이터 크기는 ㉡의 25%로 감소하였겠군.
- ④ 2×2 범위로 최댓값 통합 규칙을 사용하여 ㉡를 통합 연산한 경우, 해당 범위의 유닛 값들 중 최댓값이 ㉢의 하나의 유닛 값으로 도출되었겠군.
- ⑤ ㉡에서 ㉢를 출력하기 위한 통합 연산에는 '♡' 모양의 특징을 검출할 수 있는 필터가 적용되었겠군.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옹이 졸다가 말하기를,
 “네 두 손으로 내 발바닥을 문지르라.”
 하여 생이 종일토록 노옹의 발바닥을 부비더니 노옹이 깨어나 말하기를,
 “그대를 위하여 사방으로 찾아 다녔으나 보지 못하고 후토부인에게 물으니 마고할미 데려다가 낙양 동촌에 가 산다하기로 거기 가보니 과연 숙향이 누상에서 수를 놓고 있거늘 보고 온 일을 표하기 위해 불평이를 내리쳐 수놓은 봉의 날개 끝을 태우고 왔노라. 너는 그 할미를 찾아보고 숙향의 종적을 묻되 그 수의 불탄 데를 이르라.”/하였다. 이랑이 말하기를,
 “제가 처음에 가 찾으니 여차여차 이르기로 표진강가에까지 갔다가 이리 왔는데 낙양 동촌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렇게 숙일 수가 있습니까?”
 하니 노옹이 웃으며 말하기를,
 “마고선녀는 범인(凡人)이 아니라 그대 정성을 시험함이니 다시 가 애걸하면 숙향을 보려니와 만일 그대 부모가 숙향을 만난 것을 알면 숙향이 큰 화를 당하리라.”
 하고 이미 간 데 없었다. 그리하여 이랑은 집으로 돌아왔다. 선시(先時)*에 할미 이랑을 속여 보내고 안으로 들어와 낭자더러 말하기를,
 “아까 그 소년을 보셨습니까? 이는 천상 태을이요, 인간 이선입니다.”/하니 낭자가 물었다.
 “태을인 줄 어찌 아셨습니까?”
 할미가 말하기를,
 “그 소년의 말을 들으니 ‘대성사 부처를 따라 요지(瑤池)에 반도(蟠桃)*를 받고 조적의 수(繡) 족자를 샀노라.’ 하니 태을임이 분명합니다.”
 하니 낭자가 말하였다.
 “세상 일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니 옥지환(玉指環)*의 진주를 가진 사람을 살펴주십시오.”
 할미가 말하기를
 “그 말이 옳습니다.”/하였다.
 하루는 낭자가 누상에서 수를 놓더니 문득 난데없는 불뚱이 떨어져 수 놓은 봉의 날개 끝이 탔는지라 낭자가 놀라 할미에게 보이니 할미가 말하기를,
 “이는 화덕진군의 조화니 자연 알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 이랑이 목욕재계하고 황금(黃金) 일정(一正)을 가지고 할미 집을 찾아가니 할미가 맞이하여 말하기를,
 “저번에 취한 술이 엇그제야 깨어 해정(解醒)하려고 하던 차에 오늘 공자를 만나니 다행한 일입니다.”
 하니 이랑이 말했다.
 “할미 집의 술을 많이 먹고 술값을 갚지 못하였기로 금전 일정을 가져와 정을 표하노라.”
 할미가 말하기를,
 “주시는 것은 받거니와 제 집이 비록 가난하나 술독 위에 주성(酒星)이 비치고 밑에는 주천(酒泉)이 있습니다. 가득찬 술동이의 입자는 따로 있는 법이라, 어찌 값을 의논하겠습니까? 다른 말씀은 마시고 무슨 일로 수천 리를 왕래하셨습니다?”
 하니 이랑이 탄식하며 말했다.
 “할미의 말을 곧이듣고 숙향을 찾으러 갔노라.”
 할미가 말하기를,
 “낭군은 참으로 신의 있는 선비입니다. 그런 병인(病人)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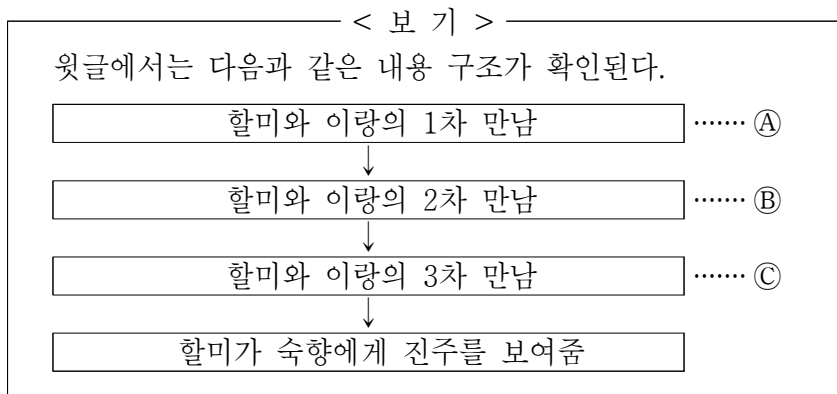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니 숙향이 알면 자못 감사할 것입니다.”
 하니 이랑이 말하였다.
 “헛수고를 누가 알겠는가?”
 할미가 거짓으로 놀라는 척하며 말했다.
 “숙향이 이미 죽었습니까?”
 이랑이 말하기를,
 “노전에 가 노옹의 말을 들으니 낙양 동촌 술 파는 할미 집에 있다고 하니 할미집이 아니면 어디에 있겠는가? 사람을 속임이 너무 짓궂도다.”
 하니 할미 정색하여 말하기를,
 “낭군의 말씀이 매우 허단합니다. 화덕진군은 남천문 밖에 있고 마고선녀는 천태산에 있어 인간에 내려올 일이 없거늘 숙향을 데려 갔다는 말이 더욱 황당합니다.”
 하였다. 이랑이 말하기를,
 “화덕진군이 말하기를, ‘숙향이 수놓는데 불뚱을 나리쳐 봉의 날개를 태웠으니 후일 정간(徵看)하라.’ 하였으니 그 노옹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라고, 물으니 할미가 말했다.
 “진실로 그러하다면 낭군의 정성이 지극합니다.”
 이랑이 말하기를,
 “방장(方丈), 봉래(蓬萊)를 다 돌아서도 못 찾으면 이선이 또한 죽으리도다.”
 하고 술도 아니 먹고 일어나거늘 할미 웃으며 말하기를,
 “숙녀(淑女)를 취하여 동락(同樂)할 것이지 구태여 그런 병든 걸인을 괴로이 찾으십니까?”
 하니 이랑이 말하기를,
 “어진 배필이 없음이 아니라 이미 전생 일을 알고서야 어찌 숙향을 생각지 않겠느냐? 내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할미가 또 말하기를,
 “제가 아무쪼록 찾아 기별할 것이니 과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니 이랑이 말하기를,
 “나의 목숨이 할미에게 달렸으니 가련하게 여김을 바라노라.”
 하고 할미를 이별하고 집에 돌아와 밤낮으로 고대하더니 삼일 후에 할미가 나귀를 타고 오거늘 기쁘게 맞이하여 서당(書堂)에 앉히고 물었다.
 “할미는 어찌 오늘에야 찾아 왔는가?”/ 할미가 말했다.
 “낭군을 위하여 숙낭자를 찾으러 다니니 숙향이란 이름이 세 곳에 있으되 하나는 태후 여감의 딸이요, 하나는 시랑 황전의 딸이요, 하나는 부모 없이 빌어먹는 아이였습니다. 세 곳에 기별한 즉 둘은 응답하나 걸인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내 배필은 진주 가져간 사람이니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리라’ 하더이다.”
 이랑이 대희하여 말하기를,
 “필시 요지에 갔을 적에 반도를 주던 선녀로다. 수고스럽지만 이 진주를 갖다가 보이라.”
 하고 술과 안주를 내어 관대하니 할미 응락하고 돌아가 낭자더러 이생의 말을 이르고 진주를 내어 주거늘 낭자가 보고 ‘맞습니다.’ 하니 할미는 웃고, 즉시 이랑에게 가 말했다.
 - 작자 미상, 「숙향전」 -

* 선시: 이전의 어느 날.
 * 반도: 삼천 년마다 한 번씩 열매가 열린다는 선경에 있는 복숭아.
 * 옥지환: 옥으로 만든 가락지.

2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사의 진행 과정에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 ② 등장인물의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인물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할미는 자신과 숙향의 관계를 이랑에게 숨겨 이랑과 숙향의 만남을 지연시킨다.
- ② ㉠과 ㉡ 사이에 이랑은 화덕진군으로부터 마고선녀인 할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 ③ ㉡에서 할미는 숙향을 두고 ‘병든 걸인’이라 칭하여 숙향에 대한 이랑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
- ④ ㉢에서 할미는 이랑에게 자신과 숙향의 관계를 밝히고 만남을 주선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 ⑤ ㉠에서 ㉢로 진행되면서 숙향과의 만남에 대한 이랑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숙향전’은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남녀 주인공의 인연이 지상계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두 주인공은 의지적인 태도로 고난에 대처해 가고, 결국은 징표에 근거하여 서로가 인연임을 확인하게 된다.

- ① 이랑이 숙향을 찾아 ‘표진강가에까지 갔다가 이리 왔’다는 것은, 이랑과 숙향의 결연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숙향이 ‘문득 난데없는 불똥’을 보고 놀란 것은, 이랑과 자신에게 뜻밖의 시련이 닥칠 것임을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군.
- ③ 이랑이 ‘이미 전생 일을 알고서야 어찌 숙향을 생각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데서, 이들의 인연이 이미 천상계에서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군.
- ④ 이랑이 ‘내 찾지 못하면 맹세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겠다고 말한 것은, 숙향과의 인연을 이어나가려는 의지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숙향이 ‘진주를 보아야 허락하’겠다고 말한 것은, 징표를 통해 이랑이 자신의 인연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32.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와 같이 반응하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랑과 숙향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이랑은 ㉠ 하겠군.”

- ① 감개무량(感慨無量)
- ② 면중복배(面從腹背)
- ③ 의기소침(意氣銷沈)
- ④ 전전공공(戰戰兢兢)
- ⑤ 절치부심(切齒腐心)

[33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대는 토지를 빌려주고 얻는 대가를 말한다. 지대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는 고전경제학파의 리카도로부터 이론적으로 정교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차액지대론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령, 어떤 나라의 A, B, C 지역에 쌀 생산에만 쓰이는 토지가 있는데 그 비옥도에 차이가 있어 각 지역 토지에서의 쌀 한 가마당 생산비가 5만 원, 6만 원, 8만 원이라고 하자. 여기서 생산비는 투입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쌀의 가격은 생산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 나라의 쌀 수요량이 적어서 A 지역 토지의 일부만 경작해도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때 전국의 쌀 한 가마당 가격은 A 지역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인 5만 원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쌀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A 지역 토지들로 모자라 B 지역 토지도 경작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 B 지역 토지를, 경작되는 토지 가운데 가장 열악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한계지라 부른다. B 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전국의 쌀 한 가마당 가격은 6만 원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A 지역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5만 원을 들여 6만 원을 벌 수 있어 쌀 한 가마당 1만 원의 소득을 추가로 얻게 된다. 이 소득은 사람들로 하여금 A 지역 토지를 이용하려는 경쟁을 유발하고 지주에게 땅을 빌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더 높은 지대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지대는 결국 기존의 A 지역 토지 경작자들의 추가 소득인 1만 원으로 결정될 것이다. 쌀 수요량이 더 늘어나서 C 지역 토지가 한계지가 되면 ㉠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더 오르고, B 지역 토지에도 지대가 형성된다. 결국 쌀의 가격은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가 되고,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들의 지대는 그 토지에서의 쌀 생산비와 한계지에서의 쌀 생산비의 차액이 되는 것이므로, 더 열악한 땅이 한계지가 될수록 쌀 가격은 오르고 그에 따라 지대도 오르게 된다.

이와 같이 ㉡ 리카도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즉 잉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지대를 토지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 아니라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오름으로써 얻게 되는 불로소득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고전경제학파의 지대론에 입각해 헨리 조지는 지대 전액을 조세로 걷어야 한다는 지대 조세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고전경제학파에 이어 등장한 초기 신고전경제학파는 지대를 잉여나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의 ㉞ 클라크는 토지를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지대를 ‘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새롭게 정의했다. 이 이론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인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생산 요소의 가격은 그것의 한계생산가치, 즉 생산 요소 한 단위를 추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토지의 임대 가격인 지대도 토지로부터 얻게 되는 생산물의 생산량 증가분만큼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로써 지대를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로 보고 토지를 노동이나 자본과 별개로 취급하는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비판했다.

리카도와 클라크의 논의는 신고전경제학파의 ㉟ 마셜의 이론으로 이어진다. 마셜은 초기 신고전경제학파의 한계생산이론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고전경제학파의 지대론을 재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 우선 마셜은 생산 요소를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생산 요소와 그렇지 않은 고정 생산 요소로 나누고 그에 대한 비용을 각각 가변 비용, 고정 비용이라 정의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즉각적으로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이나 자본은 가변 생산 요소이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필지를 특정 시기에 목돈을 지불하여 빌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입량을 즉각적으로 조절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지를 빌려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는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 마셜은 생산자의 행위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물 한 단위를 더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의 추가분 즉, 한계 비용이 생산물 한 단위의 가격과 같아 지도록 생산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한계 비용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비용이므로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임에 따라 즉각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 비용에 한해서만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대는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에 관여하는 한계 비용으로 볼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셜은 지대를 생산에 기여하는 비용으로 보는 초기 신고전경제학의 관점과, 임금이나 이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고전경제학파의 관점을 자신의 이론안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마셜은 지대를 순전히 자연의 혜택으로 인한 것으로 한정하면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이 인위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토지의 비옥도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는 한편 그는 토지 이외의 요소에도 지대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를테면 마셜은 공장, 기계 등 고가의 자본 설비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대가가 지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준(準)지대’라고 하였다. 이런 요소도 토지처럼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고정 생산 요소지만, 장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셜은 이전까지의 지대론을 정교화하고 현대 지대론으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3.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대의 성격을 달리 보는 두 이론이 후속 이론으로 수용되는 논의의 흐름을 설명하고, 후속 이론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 ② 지대의 결정 원리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현실에서 실제로 지대가 결정되는 사례에 그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 ③ 지대의 개념을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밝히고 지대가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 ④ 지대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피고, 지대론의 변천에 영향을 준 시대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 ⑤ 지대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들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3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밑줄 친 [A]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갑국은 곡물 수급의 일부를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곡물 수입이 완전히 끊김으로써 곡물의 공급이 부족해졌고 그로 인해 그동안 쓰지 않던 척박한 땅까지 경작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곡물 가격과 기존 경작지의 지대가 크게 올랐다. 이후 주변국과의 분쟁이 해결되자 곡물 수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은 ‘곡물 수입을 막아야 한다. 그 이유는 갑국의 지대가 비싸서 곡물의 가격이 높으므로 곡물 수입을 재개하면 경쟁력이 없는 갑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리카도는 자신의 ‘차액지대론’에 입각하여 ‘갑국의 농업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곡물 수입을 재개하면 곡물의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고 [A] 그 손해는 지주들에게만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맞섰다.

- ① 그동안의 지대 상승은 곡물 가격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② 그동안의 곡물 공급 부족은 지대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③ 그동안의 곡물 생산비 상승은 곡물 가격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④ 그동안의 곡물 가격 상승은 곡물 생산비 하락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⑤ 그동안의 곡물 생산비 상승은 지대 상승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35. ㉟의 결과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지역 토지와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각각 1만 원이 된다.
- ② A 지역 토지와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각각 2만 원이 된다.
- ③ A 지역 토지와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각각 3만 원이 된다.
- ④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2만 원,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1만 원이 된다.
- ⑤ A 지역 토지의 지대는 3만 원, B 지역 토지의 지대는 2만 원이 된다.

3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헨리 조지의 지대 조세론에 영향을 끼쳤다.
- ② ㉠과 ㉡는 모두 지대를 토지 생산물과 관련짓고 있다.
- ③ ㉡는 ㉢와 달리 토지를 생산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다.
- ④ ㉢는 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지대를 해석하고 있다.
- ⑤ ㉢는 ㉠와 달리 지대를 자연적 요소에 의한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37. <보기>를 윗글의 마셜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공장 부지를 임대하여 빵을 생산하던 기업 ㉠은 빵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자 밀가루 투입량과 노동자 수를 즉시 늘려 빵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했다. 그러다 빵 가격이 더 오르게 되자 ㉠은 거액을 투자하여 추가로 공장 부지를 빌렸고 이를 통해 빵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나)

임대 비행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 ㉡는 승객이 늘어나 비행 운임이 오르자, 비행기를 추가로 빌려 운항하는 비행기 수를 늘렸다.

- ① (가)에서 빵 가격이 오르자 ㉠이 노동자와 밀가루를 즉시 추가 투입했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밀가루는 가변 생산 요소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이 빵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 부지를 추가로 빌렸다는 점에서 지대는 장기적으로는 가변 비용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이 추가로 빌린 공장 부지는 단기적으로는 가변 생산 요소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가 지불하는 비행기 임대료는 비행기의 공급을 쉽게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준지대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가 추가 투입한 비행기의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겠군.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이 그렇다는 것이지? 작자는 나로서는 생전 이름도 들어 보지 못한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을 빙빙 돌아다니며 사는 놈인데 그리고 보니 작자의 저 광증에 가까운 생활 태도는 무전 여행자의 그것 아니면 촌놈이 서울에 와 보니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해서 어쩔 줄을 몰라, 아니 무턱대고 우쭐대고 싶은 저 촌뜨기 의식에 가득 차서 괜히 심각한 체해 보았다가 시시하게 웃어 보았다가 술 사달라고 조르고 사랑이 어찌고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이다. 고향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나 고향이 그리운 것 같지도 않다. 작자의 고향에는 자기의 어머니와 누이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만 작자는 그들에게 대해서 별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것이다. 나는 작자에게 보낸 그의 어머니의 편지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것처럼 다정하고 착하고 그리고 내가 그 편지 속에서 받은 느낌을 상상해 보건대 것처럼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어머니가 좀처럼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성모 마리아의 하얀 석상을 볼 때 받는 느낌 같았다고나 할까, 요컨대 작자에게는 분에 넘치기 짝이 없이 훌륭한 어머니인 것이다.

‘아들아, 먼 곳에 너를 보내 놓고 마음 한시도 놓지 못하고 있다. 하느님께 기도 드리면 내 아들이 아무리 먼 곳에 가 있더라도 심신 평안하다 하여 지난 주일부터는 읍내에 있는 성당에 다니기로 하였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

내가 읽은 그의 어머니의 편지 한 구절이다.

내가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에 작자는, 우리 마을에서 성당이 있는 읍내까지는 꼬박 30리 길인데... 왕복 60리, ... 미친 짓하고 계셔, 라고 투덜대더니 괜히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편지를 돌려주자 북북 찢어서 팽개쳐 버리는 것이었다. 것처럼 착한 어머니께 ‘미친’이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그야말로 미친 바보, 멧덩구리, 촌놈, 얼치기, 치한.

(나)

누이는 도시에서의 이야기를 나와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려 들지 않았었다. 우리는 누이가 지니고 왔던 작은 보따리를 헤쳐 보았다. 그러나 헌 옷 몇 벌과 두어 가지의 화장 도구를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걸로써는 누이에게 침묵을 만들어 준 이 년의 내용을 측량해 볼 길이 없었다. 누이의 침묵은 무엇인가의 항거의 표시였다. 우리를 향한 항거였을까, 도시를 향한 항거였을까.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누이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높은 목소리로 질책하는 방법이 침묵의 질책보다 더 서투르다는 것을 결국 도시에서 배워 왔단 말인가?

[A]

반대로, 도시를 향한 항거라면 — 아마 틀림없이 이것인 모양이었는데 — 그렇다면 누이의 저 항수와 고독을 발산하는 눈빛, 사람들이 ㉠ 두고 온 것들에게 보내는 마음의 등불 같은 저 눈빛을 우리는 무엇으로써 설명해야 할 것인가?

누이가 돌아오고, 누이가 도시에서의 기억을 망각하려고 애쓰는 듯한 침묵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마 누이가 도시에서 묻혀온 고독이 병균처럼 우리 자신들조차 침식시켜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황혼과 이 해풍. 그들이 우리에게 알기를 강요하던 세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미소를 침묵으로 바꾸어 놓는,

요컨대 우리가 만족해 있던 것을 그 반대로 치환시켜 버리는 세계였던 것인가. 누이는 적어도 우리가 보낼 때에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완성되기 위해서 간 것이었다. 그런데 침묵의 훈련만을 받고 돌아오다니.

어제 저녁,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표시로 되어 있는 밀국수를 끓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말씨와 정성어린 손짓으로 누이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도시에서 무슨 일을 했던가, 결국 곤란을 겪었던가, 무엇이 재미있었던가, 남자를 사귀었던가, 그렇다면 어떤 남자였던가, 고 얘기해 주기를 간청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짐작컨대 누이의 쓰라린 추억을 불러일으킨 모양이었다. 누이는 어머니를 붙들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석유 등잔불의 필력은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더욱 쓸쓸해 보이게 했다. ㉡왜 저를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누이는 말했다. 어머니도 소리 없이 울었다. 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새삼스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어머니, 라고 누이는 말하고 싶었던 거다. 하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무서운 사건이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다음날은 희생자들이 작은 조각에 몸을 기대고 자기들의 괴로움을 울며 부유하는 것이다.

강물이 빠르게 밀려오고 금빛 하늘이 점점 회색으로 변해가는 이 시각에 아직도 신비한 힘을 보여 주는 자연 속에서 나는 누이로 하여금 도시의 모든 기억을 토해 버리게 할 생각이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이를 위해서였다. 이 년 동안을 씻어 버리고 다시 이 짙 냄새만을 싣고 오는 해풍으로 목욕시키고 싶었다.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저 도시가 침범해 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한 고장을 지키기에 충분한 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원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 의지의 신화들을 배운다는 것, 우는 것을 배운다는 것, 침묵을 배운다는 것, 그것만이 인간인 것이냐? 인간의 허영이 아닌가, 라고 나는 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



[선생님의 설명]

(가)와 (나)는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장들의 일부로, 각각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가)의 '나'는, 고향에 어머니와 누이를 두고 서울로 와 살고 있는 '작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나)의 '나'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2년간 살다 귀향한 '누이'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가)와 (나)는 '작자'와 '누이', 즉 고향을 떠나 도시 공간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인물을 다룸으로써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와 (나)는 독립된 장으로서 서로 구별되어 있음에도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단일 제목 하에서 통합된 의미를 구현하게 되지요. 이 작품을 읽으며 독자는, (가)에서 '나'의 시각으로 서술되는 '작자'의 모습을 통해 (나)의 [㉠]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8.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나'는 '작자'를 '무척대고 우쭐대고 싶은 저 촌뜨기 의식에 가득 차'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작자'에 대한 '나'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서 '나'는 '작자'의 어머니를 '작자에게는 분에 넘치기 짝이 없이 훌륭한 어머니'로 표현하여 '작자'와 그 어머니에 대해 대조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 ③ (가)에서 '나'는 '작자'가 어머니의 편지를 찢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것을 어머니의 헌신적인 태도에 대한 감동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④ (나)에서 '나'는 '누이'의 '울음'을, '자기들의 괴로움을 울며 부유하는' '희생자들'과 연결지어 이해하고 있다.
- ⑤ (나)에서 '누이'를 '해풍으로 목욕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누이'가 '도시의 모든 기억을 토해 버리'고 과거와 같은 존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9. 「선생님의 설명」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이'가 가져온 '작은 보따리'의 가치
- ② '누이'가 도시에서 겪었을 경험의 성격
- ③ '누이'가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게 된 계기
- ④ '나'와 '어머니'가 '누이'를 도시로 보낸 까닭
- ⑤ '어머니'가 '누이'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

40.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백적 질문이 반복되며 내적인 탐색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
- ③ 계절적 이미지를 묘사하여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 ④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41. ㉠ ~ ㉢와 관련하여 (나)의 인물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를 도시에 대해 미련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② '나'는 도시를 ㉡로 보고 자신의 고향과는 이질적인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어머니'는 ㉢를 통해 '누이'가 도시에서의 경험을 털어놓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나'는 ㉣의 발화에 이어지는 '울음'에 '누이'의 미안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나'는 고향의 속성들을 ㉢와 같이 열거하며 도시의 허영적 속성을 일깨우고 있다.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웃에 있는 장생이란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여 산에 들어가 재목을 찾았으나, 뽕뽕이 심어진 나무들은 대부분 꼬부라지고 뒤틀려서 용도에 맞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산꼭대기에 한 그루가 있었는데, 앞에서 보아도 곧바로 좌우에서 보아도 역시 곧기만 했다. 때문에 쓸 만한 좋은 재목으로 생각하고는 도끼를 들고 그쪽으로 가 뒤에서 살펴보니, 구부러져 있는 나무였다. 이에 장생은 도끼를 내던지고 탄식했다.

“아, 나무 가운데 재목이 될 만한 것은 보면 쉽게 살필 수 있고, 고르면 쉽게 가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나무의 경우는 내가 세 번이나 살폈어도 쓸모없는 재목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니 하물며 사람들이 외모를 그럴 듯하게 꾸미고 속마음을 깊게 숨기는 경우에 있어서라! 그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고 그 외모를 보면 친절하고 다정하기만 하며 세세한 행동을 살펴보아도 삼가고 삼가니, 군자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큰 번고를 당하거나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경우에 딱치고 나면 본심을 드러내고야 마니,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언제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이다.

그리고 나무가 자랄 때, 소나 염소에 의해 짓밟히거나 도끼나 자귀에 의해 찍히는 것도 없이 비나 이슬을 맞고 무성해지면서 밤낮으로 커가니, 쪽쪽 뻗어 곧게 자라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쓸모없는 재목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다. 다지도 심하니, 하물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라! 물욕이 참된 성품을 어지럽히고 이해관계가 분별력을 흐리게 하여,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을 벗어난 자가 이루 해야 할 수 없으니, 바르지 못한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이야 조금도 괴이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가 이 일을 나에게 말하기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대의 세상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나네! 비록 그러하나 역시 할 말이 있네. 《서경》의 <홍범> 편에 오행을 논하면서 ‘나무는 그 속성이 구부러지거나 바르다’고 하였네. 그렇다면 나무가 굽은 것은 재목감으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 속성으로는 원래가 그러한 것이네. 하지만 공자께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직한 것이니, 정직하지 않고도 살아간다는 것은 요행히 죽음을 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네. 그렇다면 사람이 고서 정직하지 않게 사는 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사는 것도 역시 요행이라 할 수밖에 없네.

그런데 내가 세상을 보건대, 나무 가운데 굽은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목수일지라도 가져다 쓰지 않지만, 사람 가운데 곧지 못한 자는 아무리 잘 다스려지는 치세일지라도 내버리고 쓰지 않은 적이 없네. 자네도 큰 집을 한번 보게나. 그 집의 들보나 기둥이나 서까래나 각목을 구름 모양으로 꾸미거나 물결처럼 장식한 경우에도 굽은 재목을 보지 못할 것이네. 이번에 또한 조정을 한번 보게나. 공경과 사대부로서 인끈을 차고 고관지위에 올라 조정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 치고 바른 도를 지닌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네. 이처럼 나무 가운데 굽은 것은 항상 불행하지만, 사람 가운데 비뚤어진 자는 늘 행복하기만 하다네. 옛말에 ‘활줄처럼 곧으면 길가에서 죽고, 갈고리처럼 굽으면 공후에 봉해진다.’고 하였으니, 이 말로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굽은 나무보다 대우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네.”

- 장유, 「곡목설」 -

(나)

집에 옷과 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
우리 집 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며 이르리라
처음의 할아버지 살림살이하려 할 때
어진 마음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A] 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올벼논 텃밭이 여드레같이로다
자손에게 물려줘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가멸게* 살던 것을
요사이 머슴들은 철이 어찌 아주 없어
[B] 밥사발 큰지 작은지 옷이 좋은지 굵은지에만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생각 들어 흘깃흘깃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나 내 세간이 좋아들게 되었는데
옛그제 날강도에 가산을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제사를 어찌하여 치르려는가
김가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자꾸나

- 허전, 「고공가」 -

*고공: 머슴
*가멸게: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게.
*호수: 공물과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

(다)

[C] 비가 새어 썩은 집을 그 누가 고쳐 이며
옷 벗어 무너진 담 누가 고쳐 쌓을까
불한당 도적들 멀리 안 다니거늘
화살 찬 경비병들 그 누가 힘써 할까
[D] 크게 기운 집에 마노라* 혼자 앉아
분부를 뉘 들으며 논의를 뉘와 할까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맡아 계시니
[E]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탓이라 할 것인가
철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니와
돌이켜 헤아리니 마노라 탓이로다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 종의 죄가 많건마는
그렇지만 세상 보기에 민망하여 여쭙니다
새끼 꼬기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F] 집일을 고치려면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으려면 상벌을 밝히시고
[G] 상벌을 밝히려면 어른 종을 믿으소서
진실로 이렇게 하시면 집안 절로 일어나리라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

*마노라: 상전, 마님, 임금 등 남녀를 두루 높이어 이르는 말.

42.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을 통해 과거 지향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조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③ 가상의 사례를 들어 가치관의 대립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용 전개와 기반으로 삼고 있다.
- ⑤ 자연과 인간의 변화상을 묘사하여 세월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43. (가)의 ‘장생’과 ‘나’의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물(나무)로 인해 떠올린 생각	인간사와 연관 짓기	
장생	여러 번 보고도 그 구부러져 있음을 파악하지 못함.	사람을 여러 번 보고도 그 실체를 짐작하지 못함.	... ①
	본래 곧은 나무도 곧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타고난 성품을 굽히고 본래의 모습을 벗어난 사람도 있음.	... ②
나	나무의 속성에는 곧음과 구부러짐이 모두 포함됨.	인간의 천성에는 올바름과 바르지 않음이 모두 포함됨.	... ③
	곧은 나무는 큰 집을 이루는 재목으로 사용됨.	활줄처럼 곧은 사람은 세상에서 쓰이기 어려움.	... ④
	굽은 나무는 보잘것없는 목수에게라도 선택되기 어려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오름.	... 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발화는 작가에 의해 기획되고 통제된다. 화자의 역할을 맡은 인물이 청자를 상정하지만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발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인물들 간에 주고받는 발화로 구성된 대화가 작품 내에서 나타나기도 하며, 발화의 주고받음이 텍스트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텍스트 간의 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작가는 이와 같이 발화 내용 및 발화들 간의 관계를 주재하고 조정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도를 구체화한다.

- ① (가)에서 ‘장생’의 ‘탄식’은 ‘나’에게 전달되면서 대화의 실마리가 된다.
- ② (가)에서 ‘나’는 ‘장생’의 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더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청자로 호명된 ‘고공’의 반응이 제시되지 않아 화자의 발화가 독백에 가까운 형태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다)의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나)의 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공감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 ⑤ (다)는 이 작품이 (나)에 대한 화답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와 (다) 사이에는 텍스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5.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집’이 재산을 축적하게 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머슴들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C]: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설의적 표현을 통해 ‘마노라’의 심리적 부담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E]: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